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미자립교회돕기골프대회 OC장로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장로협의회(회장 김생수)는 '제8차 미자립 교회 돕기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를 오는 7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로스 코요테 골프장(8888 Los Coyotes Drive, Buena Park, CA 90621)에서 개최한다.

김생수 회장은 "환란 중에 돌보아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자립교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 말했다.

김종대 총괄 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미자립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미자립교회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미자립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이번 골프 토너먼트 참가비는 140달러(상품 및 점심, 저녁 만찬 포함)이다. 출인원인 경우 현금 2만 달러가 상금으로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비행기표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문의: (714) 234-1631 (김종대 총괄 위원장)

제41차 한인교회 총회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제41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지난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 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975 S Berendo St., LA, CA 90006)에서 개최됐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는 이번 총회에서 신임 신임 총회장으로 이행보 목사(테네시주 내쉬빌 연합침례교회)를 선출했으며, 제1 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조낙현 목사를 추대했다.

이행보 신임 총회장은 "교회와 총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70명 선교사 파송과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5개년 계획 실행에 사역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아울러 "미국 내 15개, 캐나다 10교회, EM 5개 교회를 목표로 교회 개척 운동과 전도 활성화 운동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영하 목사(침례회 남가주 지방회장)는 "은혜와 감동 그리고 선교를 위해 도전했던 총회였다."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미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고통을 나누면 행복이 보입니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보시의 방법은 재시, 범시, 무외시 3가지가 있습니다.



거움을 주는 것이지요."

무외시(無畏施)란 다른 생명의 공포심을 제거해주는 행동입니다. 즉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의 자애로움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 고통에 대한 애정 어린 공감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

재시(財施)는 물질을 원인으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남과 더불어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때 현재는 따뜻하고 미래는 평화스러워짐이 재보시입니다.

이때 우리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질이 모두 청정한 것, 즉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강경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제4' 를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없이 보시한다면 그福德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나 조건 등 이유를 달지 않고 보시할 때 진정한 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시(法施)는 정신적으로 궁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좋은 말씀으로 그를 편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뇌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얻

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행위가 범보시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주변에는 의외로 진리에 목말라 하는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장황한 이론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는 한 마디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범망경은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보살을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구하는 온갖 것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도 보시하지 아니하며,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계송과 작은 법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붓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 죄이나라."

물질을 보시하면 얼마간의 고뇌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풀면 평생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잡아합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배풀면 큰 힘을 얻고, 입을 것을 배풀면 잘 생긴 얼굴을 얻으며, 탈 것을 배풀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배풀면 밝은 눈을 얻으리라.

집으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면 모두를 주는 것이고, 법으로 중생을 가르치면 감로(甘露)를 베푸는 것이니라. 감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즐

입니다. 무외시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여기가 곧 극락이 됩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리이고, 현재를 살아 가는 모든 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논리입니다

배풍다는 생각도 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이며 대승에서 강조하는 이타적(利他的) 자비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보시하려 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보시할 때에는 마음이 흐뭇하며, 보시한 뒤에는 마음에 후회 말라. 그리하여 우리의 어린애는 죽지 않으리, 주려 할 때는 그 마음 기쁘고, 줄 때에는 그 마음 흐뭇하며, 주고 난 뒤에는 그 마음 즐거워 하라. 이것이야말로 참 자선(慈善)이나라." <본생경>

보시는 모든 행(行)의 근원이며, 무명을 제거하고 열반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이웃과 나눔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둠에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보시하는 것은 무지의 고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최상의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혜총스님-

그래픽/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